

허달재 화백 '가지 끝 흰 것 하나' 전, 6월 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다양한 시도로 화려한 매화 표현했죠”

그림 속 매화를 본 후 '진짜' 매화를 보러갔다. 지난 13일 직현(直軒) 허달재(70) 화백과 찾은 무등산 춘설현의 매화는 아직 자태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다. 흐드러지게 피어있지 않은 터라 오히려 몇몇 꽃들이 귀해 보였다. 가지 하나 하나를 붙잡고 향기를 맡았다. 꽃잎 하나에서 그리 진한 향기가 묻어나오는 지 몰랐다. 해질녘이라 향기가 더 짙다고 했다. 할아버지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6) 화백이 심은 매화와 손자 허달재 화백이 심은 매화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할아버지는 늘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림 한 점 그리고 죽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림 속 매화로 다시 돌아가 본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허달재 화백의 전시 '가지 끝 흰 것 하나' (6월13일까지) 전에는 매화, 모란, 포도 그림을 비롯해 돌과 다기(茶器)를 소재로 한 신작 등 40여점이 나왔다. 중국 베이징 화원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최근 10여년간 중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허 화백이 광주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립미술관이 증진작가 초대전으로 기획했다.

갤러리 입구에서 백매의 소박하고 고즈넉한 자



‘모란’

조부 허백련 춘설현 매화서 영감 홍매·모란·포도 등 40여점 선보여 다양한 돌·다구 소재 추상도 전시

태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다면, 전시장 중앙에 나란히 걸린 3점의 대형 홍매 작품은 화려함에 작은 탄성이 나온다. 자유분방하게 뻗은 가지 위에 놓인 건 꽃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다. 그의 매화 그림에서는 현대적 느낌이 강하게 풍긴다. 붉은빛은 흥차, 노란빛은 치자물, 회색빛은 먹물을 칠해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가지와 꽃을 엮었다. 금분(金粉)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려함을 더했다.

“화선지에 매화만을 그리기도 하다가 바탕색을 얇게 깔아 홍매, 백매 등을 그리기 시작했죠. 매화가 의외로 화려한 느낌이 나는데 딱만 가지고는 그 느낌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바탕색을 넣어 보고, 채색도 하면서 이런 저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매화 꽃술을 세밀하게 그렸는데 자연스레 꽃을 자세히 그리는 대신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며 다른 느낌을 넣어보려 했습니다.”

의재의 장손으로 다섯살 무렵부터 할아버지에게 서예를 배우며 춘설현에 드나들던 그다. 봄을 알리는 매화는 언제나 그와 함께였고, 사군자를 모두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건 매화였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매화 그림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접하기 어려운 화풍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에 금가루를 칠하고, 화려하고 예쁘게만 그렸으면 그리 평가를 받지는 못했을 테지요. 서예에서 글씨를 쓰듯, 붓의 움직임이 살아있어 매화 가지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매화꽃을 실제 모습으로 그리지 않아 어찌면 꽃 하나 없는 매화 작품인 셈이죠. 우리 그림의 특성인 '정중동'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 그제 점과 선으로만 나타내더라도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 화백은 “보는 게 반 공부”라고 말했다. 곁에 두고 자주 보고 접하니 좋아지고, 자연스레 작품이 됐다.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인 ‘모란’ 그림도 마찬가지다. 30여년전 여러나라에서 모란 씨를 가져



허달재 화백 초청 전시회 '가지 끝 흰 것 하나' 전이 오는 6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와 작업실에 심었고, 모란이 필 때면 늘 함께였다. 이번에도 모란 작품은 가지와 이파리를 생략하고 꽃만 부각시킨 게 특징이다.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다양한 '돌'과 '다구' 역시 마찬가지다. 춘설현에서 재배한 '춘설차'를 마시는 그에게 '다구'는 생활용품이다. 화선지 100장을 잘라두고, 술 한 잔, 차 한잔 마시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다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자연스러운 작품이 나왔다. 추상성이 가미된 돌 그림도 마찬가지다. 또 사군자는 고리타분하고,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는 병풍 작품도 눈길을 끈다.

“자꾸 보니 좋은 것들은 마음 속에도 모르게 남아있더군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 보고, 그것들을 그리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작업할 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일단 던져 보지요. 상대와 부딪치기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 집니다. 내 그림은 나를 찾아가는, 나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그림에는 어떤 욕심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변화는 전통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늘 잊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 누구의 손자”는 그에게 운명같은 것이었으리라. 그림도 그림이지만 ‘삶’을 늘 강조했던 할아버지는 “생활은 검소하게 하고, 마음은 겸손

하게 해라. 사회에,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손자라고 해서 제자들보다 더 잘해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웃음) 새록새록 서운했던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때 그랬으면 나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림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 자기 몸에 체득될 때까지 줄곧 노력하는 것. 그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 화백은 지금이 작업의 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먹색만 가지고 승부하는 대작을 그려볼 생각이다. 함평군 손불면에 작업실을 마련중인 그는 두번째 동화책도 낼 예정이다. 직접 글을 쓰고 그림까지 그리는 작업이라 머리가 아프지만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허 화백과 인터뷰를 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의 하나가 '재미있다'는 표현이었다. 60여년 가까이 해 온 일이 여전히 재미있다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춘설현을 둘러보며 허 화백은 매화가 지면 계절 따라 또 다른 꽃이 핀다고 했다. 철쭉, 아그네 나무꽃, 가을에는 이불처럼 갈리는 은행잎도 아름답다 하니 전시장의 꽃구경에 이어, 춘설현으로 꽃구경을 나서도 좋을 듯하다.

/글: 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윤혜리 플루트 독주회

2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기욤 꼬네송, 필리프 고베르, 프란시스 뿔랑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윤혜리(사진) 플루트 독주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Impressions exotiques (이국적 인상)'이라는 제목의 이번 독주회에서는 고전과 현대의 흔치 않은 플루트 레퍼토리가 연주된다.

시그프리드 카르그 엘러트의 '이국적 인상'을 시작으로 힌두교 춤의 신을 묘사한 조너선 하비의 '나타라지',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기욤 꼬네송의 '사라의 웃음' 등 흥미진진한 곡을 들려준다. 또 필리프 고베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프란시스 뿔랑의 '폐허를 메꾸는 플루트', 프리드리히 클라우의 '화려한 이중주'도 관객과 만난다.

제네바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며 주목받은 윤 씨는 10대에 전설적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 줄리어스 베이커와 함께 카네기홀 연주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필라델피아, 스위스로망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임수연이 협연자로 오른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음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 씨는 현재 연세대에 출강중이며 일선문화재단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윤성근 바이올린 독주회

1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사진)이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4번 F장조 K 376'을 시작으로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Op. 105',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들려준다. 마지막 곡으로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G장조 Op. 13'을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윤성근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연주자과정과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악장 등으로 활동했다. 목포대, 세한대, 전남예고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광주챔버 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날 무대에는 광주예고와 독일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조연미가 협연자로 오른다. 전석 2만원. 문의 02-511-192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전칠기에 녹아든 세월 '어둠 속 보석들'

비움박물관 5월24일까지 특별전



'세월의 흔적이 담긴 다양한 나전칠기를 만나자.'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다채로운 생활문화용품을 소장하고 있는 비움 박물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43-1)은 매 계절마다 한 가지 테마로 소장품을 집중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 봄을 맞아서는 화려한 나전칠

기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비움박물관의 봄 기획전시 '나전칠기: 어둠 속에 숨어 반짝이는 빛, 그 찬란한 보석들' 전이 오는 5월 24일까지 열린다.

한국 여인들 방치레의 으뜸으로 꼽히던 나전칠기는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조개껍데기를 무늬대로 잘라 가공한 자

개 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진 나전칠기는 부러움의 상징이었다.

이번 전시의 주요 전시품은 장롱, 문갑, 화장대, 찬장, 밥상 등 약 100여점이다. 꽃과 나무, 새가 어우러진 나전칠기는 화려함과 섬세한 조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시는 비움박물관 1층 주전시실에서 열리

며 다양한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상설전도 함께 진행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나전칠기 전시를 통해 공예에 버려졌던 빛바랜 보석들을 만나보고 그 옛날 안방에서 영롱하게 빛나던 보석 같은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